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 찾는 것 II

(요 6:22-29)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 3. 하나님의 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6:28).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매우 고상한 질문이고 높은 수준의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29절)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심방하고 구제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헬라어로 읽으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헌금 내는 것, 예배당 짓는 것, 찬양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믿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말은 계시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 (1) 믿음과 행위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것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27절). 여기의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눅 18:18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이 오는 줄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무슨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을 위하여 무엇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하신 일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 4:10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느냐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간수장의 질문에도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행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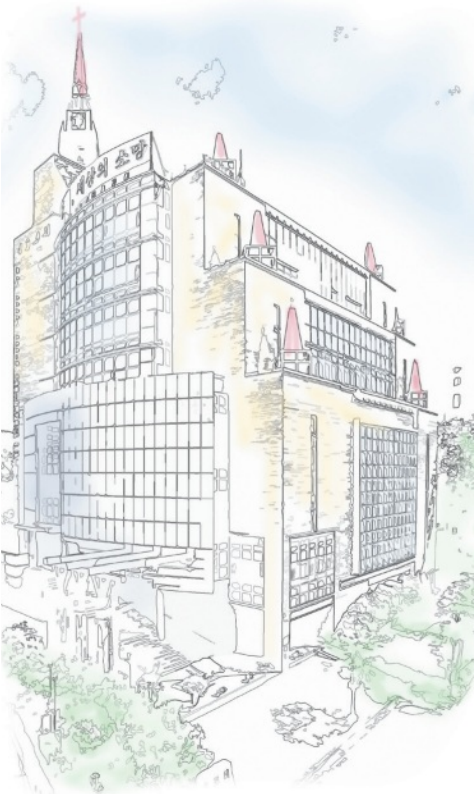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주 예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 (2) 선한 일

선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선한 일의 정의는 좋은 일이라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고, 채울 것이 더 필요치 않은 완전, 하나님을 만족시킬만한 완전은 없습니다. 땅 위에 선한 자는 없되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악한 자이며 선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이지 세례 받았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예수의 피 공로를 믿고 주님을 믿을 때에 씻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구별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해도 인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직장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인간의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촉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02주년 3.1절

#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내일 3월 1일은 제102주년 삼일절이다.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는 독립운동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였으며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망설임 없이 만세운동의 선두에 섰다. 이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나의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신앙운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교회가 어려움

에 처했으며 이 위기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성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조국을 위해 앞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들도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 호산나대학-한국바리스타산업진흥원,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이동귀 호산나대학 부학장, 중앙 한국바리스타산업진흥원 이용남 위원장

호산나대학은 2월 25일(목) 오후 2시, 호산나대학 회의실에서 한국바리스타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상호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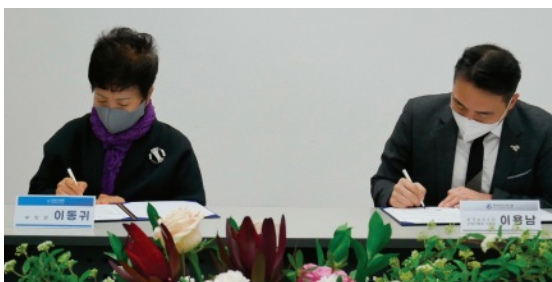
이날 협약식은 한국바리스타산업진흥원 이용남 위원장, 한국바리스타스쿨 경기지부 이정열 지부장, 한국바리스타스쿨 창동캠퍼스 오병노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전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한국바리스타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바리스타 관련 자격과정 개설 및 자격취득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및 전문인력 교류 ▲커피 관련 분야 현장 실습 및 취업지 개발을 위한 협력 ▲바리스타

관련 각종 대회 참여 및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바리스타산업진흥원 이용남 위원장은 "진흥원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지는 20년이 되었지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은 취약했던 부분이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호산나대학의 교육시스템과 진흥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바리스타산업진흥원은 전국 40여개의 바리스타스쿨을 운영하고 바리스타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매년 전국규모의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개최해 인재발굴 및 우수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기관이다.



##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 사순절 묵상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니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26-33)





# 매맞는 교회, 회개의 메시지 들어야

다음은 미래한국이 지난 1월 말 이종윤 원로목사와 나눈, 서울교회와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가 나아갈 길에 관한 인터뷰 내용으로 미래한국의 양해를 구하여 순례자에 올렸으며 지면상 요약 정리하였다. 전문은 미래한국 홈페이지(<http://www.futurekorea.co.kr>)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 \* 모범적 서울교회에 들이닥친 환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1년 개척 이후 서울교회가 너무 잘나가니까 교인들 모두가 자기만족에 도취해 있었어요. 교인 전부가 교회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어요. 서울교회는 크게 부흥했지만 너무 자만했던 것이 환란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점은 돈이나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고 작은 교회 문제들을 돈과 타협으로 해결했던 것이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가 이긴다는 것을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실에 입각해 조금의 거짓 없이 임했어요.

## \*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신 건가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십분의 구를 하나님께 바치자는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 목표로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해 한국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고, '김치세미나'를 통해 외국 교회도 세워주는 등의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용역을 시켜 소화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예배당에 들어와 직원들도 내쫓고 분당을 차지했지요. 그 바람에 여러 명의 교인들이 다치기도 했으며 지난 2년간 교회당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박노철 목사 측이 우리에게 38억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압류 받게 되어 견디기 어렵게 되자 박노철 목사에게 해결하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박 목사가 내게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박 목사는 울면서 자신이 회개했다는 것, 오판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키운 양이니 이분들이 서울교회로 돌아오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당신 말대로 당신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 나에 대한 사과에 대해 나도 용서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면 받아 줄 수 있느냐는 것은 대답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나 개인이 용서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회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까.

## \* 코로나 시대 방역 문제로 한국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다시피 지탄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염병 문제는 구약시대,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었잖아요. 그것도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었죠. 중세기에 흑사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그때는 병이 없었습니다. 질병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는 질병이 생기고 자연에도 영경귀와 가시덤불이 생겼지요. 자연도 저주를 받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자기 죄값입니까?'라고 물으면 '자기 죄값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죄값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지금도 한국 교회 일부에서는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왜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이같이 고통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우선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의 종교법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기독교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한 시간 동안 중국 정부가 공산당 선전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배당의 십자가를 떼고 시진핑의 사진을 붙이고,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시키고,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바로 그 무렵에 우한 코로나가 생겨 인간에게 퍼진 것이죠. 전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니 짐승도 저주를 받고 도륙을 당했어요. 문제는 중국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왔죠. 새벽기도도 많이 하고 대형 교회도 많고 선교사도 많은 한국에 왜 이런 질병이 왔는가? 한국 교회를 돌이켜보면 자랑할 것도 많지만 세계에서 이단을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나라들, 지식과 과학, 군사력으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보는 오만한 나라들 모두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유 없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 \*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해요. 교인들을 향해 외쳐야 하죠.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 하나

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교회를 결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총회, 모임입니다. 비대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모여야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한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비대면 하면서 어떻게 성도가 교제하겠습니까?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 \* 하지만 정부의 비대면 예배 지침을 교회가 공공의 선을 위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따르느냐 아니냐를 떠나 교인도 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국가에 모든 권력을 준 이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만들라고 정부에 칼을 준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는 지켜야죠. 그러나 동시에 당연한 것이라고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아직도 비대면 예배를 종교지도자들이 의무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 \* 앞으로 한국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 교회가 슬프게도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병행해야 합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회는 양적으로 커지게 돼 있어요. 큰 교회가 질적으로 빈약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된 거예요. 큰 교회가 된 만큼 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사명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가면 못할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겸손해지면 좋겠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 일상의 경험을 이미지로 '번역'하는 작가 한승민

우리 교회 사랑부 학생인 한승민 군이 지난 2021년 1월 11일(월)부터 1월 27일(수)까지 진행된 <효성과 함께하는 올해의 작가상>에서 2020년 수상자로 수상하였다. 다음은 '마이프렌드 효성 블로그'에 실린 한승민 군의 작품세계를 소개한 글로 전문과 한승민 군의 더 많은 작품은 <https://blog.hyosung.com/5081?category=619564> [마이프렌드 효성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좌) 한승민 군 (우) 한승민 작 <이그제이드>

효성그룹은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와 함께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의 지속가능한 창작기반 조성을 위해 <효성과 함께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지원하고 있다.

(중략)

한승민(1995년생)은 2017년부터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식물도감, 신화, 만화 등 다양한 레퍼런스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했지만, 현재는 그가 직접 경험하는 일상의 경험을 이미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영화를 보고, 혹은 수족관을 방문한 뒤 작품을 제작하는 등 그의 작품은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내러티브로부터 출발한다.

개인전 《Moving World》(그림손갤러리, 2019)를 비롯해 《NADA ART & MUSICFESTIVAL》(KT&G상상마당, 2018)에서 작품 <아쿠아리움>을 음악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선보였다. 또한 장애와 비장애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의 미래포럼 《같이 있는 가치》(DDP

CREA, 2019), 《예술에U+5G를더하다》(공덕역 6호선 플랫폼, 2019)에서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관객과 만나는 소통의 장을 넓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주제로 개최한 글리치&비주얼아트 《팬데믹》(대구예술발전소, 2020)에 참여하였다.

색의 선정, 화면의 분할, 캐릭터의 특성 등 작품의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듣고 나면 작품의 흥미로운 요소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추상적 패턴과 이미지의 조합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치 그래픽 디자인을 보는 것과 같이 평면적인 화면 구성과 명확하게 그려진 검은 윤곽선이 특징이다.

출처: [마이프렌드 효성 블로그]

<https://blog.hyosung.com/5081?category=619564>

## 다락방 개강

동절기 잠시 방학하였던 다락방 모임을 3월 첫째 주간에 개학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대면 모임은 갖지 않고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다락방 모임을 진행한다. 한편, 리더 훈련은 ZOOM 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각 교구 교역자 주관하에 교구별 일정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1일	월	신 5-7		왕하 16-21	
3월2일	화	신 8-11		왕하 22-25, 대상 1-2	
3월3일	수	신 12-14		대상 3-6	
3월4일	목	신 15-18		대상 7-11	
3월5일	금	신 19-22		대상 12-16	
3월6일	토	신 23-26		대상 17-24	
3월7일	주일	신 27-28		대상 25-29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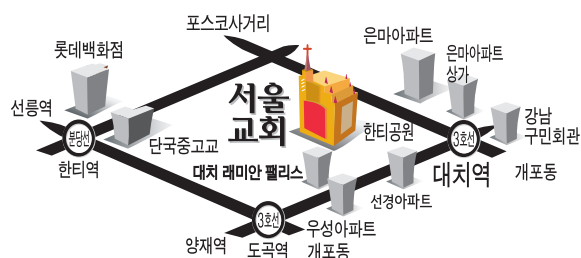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접종되어 면역력이 강화되어 속히 코로나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2. 온 성도들이 대면 및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멀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